



열네번째 이야기

서울 성곽 둘레길, 오심 리

[그리스도인 문화기행③- 서울 성곽]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필자도 작년 4월 이후 개인적으로 많이 남아도는 시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매일 걷기의 유익함을 체험해오고 있다. 걷다 보면 이곳 저곳 집 주변으로 산책코스를 정하게 되는데 주로 한강변 고수부지를 애용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코스를 발굴하게도 된다. 그런 중에 발견한 서울 성곽길은 이제 즐겨 찾는 애정의 산책길이 되었다. 2007년도 청와대 뒤 북악산 산책로가 개방되면서 시작된 서울 성곽길인 '한양도성 둘레길'은 총연장 길이가 20여km에 이르고, 서울 4대문을 지나면서 옛 성곽을 따라 걷는 고급의 역사가 깃든 둘레길이다. 크게 네 구간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각 코스를 반시계 방향으로 안내 해드리고자 한다. 시간을 내어 한 코스씩 다녀와도 좋고 시간과 체력이 된다면 여리고성 둘 듯(^^) 한 나절 전 코스를 돌아봄도 해봄 직하다.

(1) 백악산(북악산) 구간: 혜화문~창의문(5.5km, 2시간)

혜화역 부근에서 출발해 고즈넉한 혜화동과 성북동 골목길을 오르다 보면 외룡공원으로 들어가는 성곽길을 만나게 된다. 이어 경사가 있는 기다란 계단길을 두어 번 지나면서 숨이 가빠오지만, 외룡공원을 지나 성북동 쪽 숲으로 들어가면 깨끗하게 정리된 성곽과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우거진 수풀을 만날 수 있다. 막바지에 나무데크 계단길을 힘들게 오르면 전망대에 서게 되는데 가까이 성북동에 즐비한 대사관저들과 삼청각, 길상사 등 명소들이 눈에 들어오고 멀리 수락산, 불암산도 반갑게 맞아준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말바위 안내소로 가는 길에 접어들면 삼청공원으로 내려가는 하산길 표지판도 보인다. 삼청동으로 빠져 맛집과 카페를 둘러보는 것도 괜찮은 산책코스 이리라. 힘을 내어 정상을 향해 조금씩 고도를 높여 가면 아늑고 멋진 소나무가 서 있는 청운대에 다다르고 멋진 전망으로 인해 자연스레 쉬어가게 된다. 정상인 백악보다 오히려 전망이 더 좋다. 청와대는 보이지 않지만, 비로소 경복궁과 경희문 대로를 바라보는 전망이 시원하다. 날이 좋으면 멀리 남산 너머로 한강과 온누리 교회가 보이기도 한다.



잠시 머물다 보면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픈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곳이다. 이제 정상 백악(342m)을 가뿐히 오르고, 내려가는 길은 창의문까지 계속해서 계단, 계단, 계단이다. 만일 반대 방향에서 올랐다면 꽤나 힘든 코스임이 분명하다. 창의문에 이르러서는 바로 옆 부암동 맛집, 카페, 제과점에서 쉬어갈 수 있다. 시간을 좀 더 내어 서촌까지 걸어 내려가면 더 다양한 휴식처를 만날 수 있고, 먹거리가 풍성한 통인시장도 기다리고 있다.

(2) 인왕산 구간: 창의문~남대문(5km, 2시간)



윤동주언덕

창의문까지는 시내에서 몇몇 노선버스가 다닌다. 지하철 경복궁역 근처에서 승차하면 된다. 창의문 건너편에 바로 윤동주 문학관이 나온다. 그 위 언덕반이에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그의 '서시'를 볼 수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인왕산 정상(340m)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1km 남짓. 평지라면 금방 갈 텐데, 땀이 날 정도의 가파른 계단길을 두 차례는 올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바위들. 인왕산 정상에서의 전망은 성곽길에서 가장 생동감이 있다. 서울 시내 각 빌딩들과 청와대까지 가깝게 잘 보이고 시내 곳곳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는 듯하고 분주히 일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듯한다. 인왕산 호랑이 이야기를 들었던 시절도 있는데 참으로 많이, 빠르게 변했다.



인왕산에서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편안한 나무 그늘 아래 성벽 터에 잠시 쉬면서 간식도 챙겨 먹을 쉼터가 나온다. 어떤 간식이든 꿀맛이 아닐 수 없다. 혹시라도 간식을 챙겨오지 않았다면 하산하는 길에 정동까지 다다르면 삼청동 못지않은 맛집과 카페들로 준비하다.



정동돌담길

정동길 특유의 여유와 우아함까지 느낄 수 있어 금상첨화다. 정동에서는 신앙과 관련해서도 뜻깊은 곳들을 몇몇 지나치게 된다. 정동제일교회, 이화여고, 배재공원, 아펜젤러 기념관, 러시아 대사관 등등 구한말 역사의 소용돌이와 선교의 태동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봄날의 돌담길은 덕수궁으로 이어진다. 덕수궁 길로 빠져 광화문이나 청계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나가면 본격적인 서울 관광도 가능한 코스이다. 평안교회를 거쳐 서소문로를 건너고 남대문 앞에서 서울역을 바라보며 인왕산 코스를 마무리한다.

(3) 남산 구간: 남대문~장충체육관(5.5km, 2시간)



남산에서

남대문에서 시작되는 남산 구간은 가장 정겨운 길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오르내렸던 추억의 장소다. 오래전 '서울구경'하면 '창경원'과 '남산'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잘 닦여져 아름답게 조성된 성곽길로 고급의 풍미를 동시에 느끼면서 오를 수가 있다. 새롭게 단장한 백범 광장과 한양도성 유적관 그리고 그리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는(막바지 1분은 제외^^) 정상(270m). 그 위에 우뚝 선 서울 타워는 세련된 시설들과 업소들로 인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에서는 시내도 내려다보고, 반대편 전망대에서는 용산이나 한강, 여의도, 강남도 볼 수 있는 남산에서의 전망은 언제 가봐도 정겹기만 하다. 잠시 목을 축이고, 터벅터벅 내려오는 비탈길에는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갓은 튼튼들은 조심히 내려가라고 손을 흔든다. 전기버스들이 올라오는 차도 옆 지름길로 접어들면 국립극장 입구까지 거의 나무 계단으로 이어진다. 모두 세어보니 700개 가까이 된다는...ㅎ 북악산 계단길 보다는 덜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진로를 정한다면, 두 번째로 힘든 코스가 될 듯하다. 국립극장을 지나서는 반얀트리 호텔과 신라 호텔 뒷담길로 둘러싸인 길이 이어진다. 밤중에는 통행이 금지되는 호젓한 산책길이다. 다산동과 약수동을 내려다보며 쭉쭉 걷다보면, 신라호텔 뒤 정원들을 지나고 면세점과 장충체육관이 보인다. 남산 구간은 이곳에서

마무리. 장충동으로 빠져 역시나 역사 깊은 맛집들을 탐방할 수 있다. 족발이 유명하던가?

(4) 낙산 구간: 장충체육관~혜화문(4.5km, 1시간 반)



광희문 이 코스는 약수역과 동대입구역 중간 고개 마루에서 출발해서 장충동 골목길들을 지나 광희문 쪽으로 진행한다. 곧바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를 지나게 되는데, 옛 서울운동장 터였고

그 당시 봉화대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운동장을 가로질렀던 성벽도 복원이 되어 옛 기억들이 중첩되어 지나감을 느낀다. 동대문 성벽과 운동장과 디자인플라자... 참으로 서울은 복합적이고 의미심장하다. 청계천을 지고 평화시장을 지나고, 산업일꾼들의 역사적 사명을 가늠해보는 그런 발걸음이었다.



이제 동대문(홍인지문)을 지나면 낙산(124m)으로 오르는 아기자기한 언덕길이다. 도중에 이화 벽화마을도 들여다볼 수 있고 카페촌에서 쉬어갈 수도 있다.

카페 이름이 잊히지 않는다. 개별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편안하고 유유자적 전망 좋고 감성 넘치는 카페이다. 정상에서는 탁 트인 북한산 줄기를 조망할 수 있다. 낙산에 처음 올랐을 때의 감정이란, '아, 서울시내에도 이런 곳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기대 이상으로 흡족한 전망이다. 시내 방향으로 내려가면 바로 대학로 동숭동으로 연결된다. 술한 연극무대와 맛집, 카페들을 만날 수 있다. 낙산에서 혜화역으로 내려가는 길은 새롭게 잘 조성이 되어있다. 장수마을, 성곽마을 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특화된 모습으로 치장이 되어있고, 지나가는 이의 눈길을 끈다. 혜화역 근방 혜화문에서 마무리. 성곽길 네 구간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눈길이 많이 가는 코스이다.



걷기는 만병통치라고도 한다. 그런데 몸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자연을 접하고 몸에도 리듬감이 충만할 때 두뇌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 또한 걷기는 '영적'으로도 도움이 됨을 체험한다.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생각을 걸러가며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께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심을 깨닫게 된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시간을 내어 서울 성곽길을 한 구간씩 걸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다시 한번 권유해드린다. 때때로 한나절 시간을 내어 성곽길 전체를 주파하다보면 출발한 지점에 다시 돌아와 섰을 때, 그 기분은 참으로 묘한 점이 있다. 서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간다고나 할까. 비록 범죄가 넘치고 향락과 악에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 진리의 토대로, 열방의 횃불로, 성령의 도시로 세우실 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다지게 된다.



청남대에서



백범공원에서



청남대에서

[글쓴이 김종영 목사]



2008년도부터 BEE 토요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중, 늦깎이 나이(50세)에 횃불트리니티 신대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현재 온누리교회 서빙고 사랑부(장애인 예배)를 담당(파트)하고 있으며 'BEE오는 수요일' 편집팀으로 섬기는 중이다.

[정리 및 편집: 최 선]



선교지



Indonesia



[대표 음식- 빠당(Makan Padang)]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발달된 빠당 음식은 맛 이외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차림으로 유명하다. 이 음식은 보통 'Rumah makan Padang'이라는 간판을 걸고 수마트라 전통 가옥을 그려 넣은 진열장에 10-15가지의 음식을 접시에 담아 높게 쌓아 놓은 전문점에서만 맛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된 고기, 생선, 채소, 내장, 달걀 요리가 작은 접시에 담겨 한 상 가득 차려진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종업원은 손님이 손들던 음식들의 가격을 계산하여 청구한다. 빠당 음식 전문점은 인도네시아 어느 곳을 가도 볼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었고, 매운 맛이 강해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2. 매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 BEE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 ‘5분 띠기도’, 7시간의 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띠가 되어 기도해요!
3. 매주 토요일 6:30, 서빙고 비전홀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BEE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4. 6월 5일(토) 8:00, 2020-2 OBA 수료예배가 있습니다. G, R, CL 세미나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통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고백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5. BEE Korea 여름방학 특강이 개설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름 되세요!
[전도와 제자양육2, 고린도전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전달]
6. 7월 3일(토) ‘All & One’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BEE Korea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